

김은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

“살기 위해 하는 일이 나를 아프게 하지 않도록, 산재예방정책 선도할 것”

올해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으로 취임한 김은아 원장은 “바야흐로 안전의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산재 감축이 국정과제로 선정되었고, 산재와 관련한 언론보도가 과거의 수십 배 이상으로 늘어났으며, 최근에는 이를 위한 청문회가 최초로 열리는 등 산재에 대한 정부와 국민의 관심은 어느 때 보다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지는 불철주야 산업 안전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김 원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연구원의 성과 및 사업 방향, 비전에 대해 조명해보았다.

문채영 기자 mcy@monthlypeople.com

올해 1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으로 취임하신 부분 축하드립니다. 조금 늦었지만, 취임 소감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20여 년 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입사하여, 연구원과 함께 성장하면서 우리나라 안전보건분야에 연구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고민해 왔습니다. 이제 그간 생각했던 것들을 책임감 있게 하나씩 진행해 보려 합니다. 개원 이래 누적된 우리 연구원의 경험과 역량은 과거 어느 때 보다 높은 상황이지만, 격변하는 노동환경으로부터 오는 요구도 만만치 않다고 느껴집니다. 노동현장의 가장 고통스러운 곳을 거침없이 조명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되도록 길을 닦아 나가겠습니다.

국민들에게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할 및 주요 사업에 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노동자의 부상과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과 연구를 하는 기관입니다. 우리 연구원이 하는 일은 크게 연구와 전문적인 사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연구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조업, 건설업의 사고와 사망 원인을 파악하고 비계, 사다리, 벨트 등 설비 및 기자재의 안전을 보는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화학물질 독성을 동물실험을 통해 규명하는 연구, 작업환경의 유해물질을 측정하고 질병과 건강 이상을 조사·예측하는 연구가 있습니

다. 또한, 최근 10년간은 작업장의 정신적, 심리적, 문화적 어려움을 다루는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모든 문제를 법과 제도에 연계하여 제도를 개선하는 등 총체적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장에서 쓰이는 화학물질의 정보를 구축, 제공하는 시스템이 있는데요, 최근에 문제가 된 영업비밀에 대한 비공개 심의제도도 우리 연구원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중요한 사업으로는 직업병의 의심되는 노동자 또는 집단발병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조사하는 직업성 질환 역학조사가 있는데요, 1992년부터 연간 100여 건의 조사를 하면서 상당한 정보와 전문인력,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사회적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여 업종별, 직종별로 직업성 질환 위험군을 미리 찾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보건제도의 중추로 볼 수 있는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에 대해 질적 관리를 하는 사업으로 정도 관리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요즘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는 무엇인지요?

올해는 대부분의 영역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임무와 역할에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연구원에서도, 코로나 19 이후 사업장, 노동관계의 변화 흐름을 주목하고 있

는데요, 특히 노동의 변화와 이에 따른 작업장, 작업시간, 작업내용의 변화가 크다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 연구원의 전 부서가 머리를 모아 향후 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TF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업환경측정시료의 전처리와 분석을 자동화하는 연구도 우리 연구원의 최근 핵심적 사안입니다. 공단은 노동자들이 스스로 작업환경을 측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만들고 있고, 연구원은 노동자들이 스스로 채취한 시료의 분석과정을 자동화하여 자신이 일하는 환경에 대해 직접적으로 빠르게 위험을 감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중점을 두는 과제로는 사망 재해의 감소에 기여하는 연구를 수행하는 일입니다. 건설업뿐 아니라 제조업에서도 여전히 높은 사망 재해를 보이고 있어, 업종별로 주요 원인을 파악하고 가장 약한 고리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건설업의 사다리와 비계 등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사망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포스트코로나’는 향후 수년간 우리 연구원의 핵심 주제가 될 것입니다. 금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포스트코로나 TFT 활동이 마무리되면 이는 향후 연구원의 핵심 아젠다가 되어, 코로

나 이후의 노동과 안전보건의 연구 활동 등을 실행할 예정이며, 세부 과제를 학계와 함께 선정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원장 취임 전부터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연구위원 및 직업건강연구실장, 역학조사팀장 등을 역임하셨는데요. 그간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오셨는데, 혹 원장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례가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간 보람찬 일도 있었고 안타까운 일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로서 직업병 원인을 조사하고 예방하는 연구를 주로 해왔는데, 노동자의 질병 원인을 제대로 밝혀내고 이것이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때가 가장 보람 있었습니다. 1990년대에 ‘dimethylamide’라는 간에 심한 독성을 일으키는 화학물질 때문에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했습니다. 1998년에 이 물질을 쓰는 전국의 사업장을 전수 조사해서, 작업 시작 후 한 달 안에 독성간염에 걸리거나 사망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런 물질을 쓸 때는 작업 시작 전에 검진한 다음, 작업 시작 후 한 달 안에 건강검진 추가적으로 하는 것으로 제도를 바꾸었습니다. 반면 안타까운 일도 있었는데, 2000년대 중반, 방광암에





결린 노동자를 만나 면담을 했습니다. 그 노동자가 하는 말이, 자기는 직업병이라더군요. 왜 그리 생각하시나니까, 본인이 염료를 포대에 담는 일을 25년가량 했는데, 그 염료포대에 수십 년 뒤에 암에 걸릴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문구가 있었던 걸 기억난다고 말하더군요. 수십 년간 암에 걸릴 수 있는 물질을 포대에 담으면서 얼마나 조마조마했을까, 그리고 마침내 암에 걸려버렸을 때 얼마나 절망했을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먹먹했었습니다. 그 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도가 더 발전해서 많은 노동자가 자기가 쓰는 화학물질 정보를 알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 다만, 아직도 그런 정보에 익숙지 않은 사각지대의 노동자도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보가 노동자에게 제대로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 우리 연구원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직업병, 사고 및 과로로 인한 이슈들이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중들에게 크게 알려진 사례도 많지만, 알려지지 않은 사례들도 많을 텐데요. 안타까웠던 사례 혹은 더 나아가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던 사례가 있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노동자의 사고와 직업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 피부로 느껴집니다. 특히 코로나 19 이후 야간노동, 과로로 인한 사망과 건강 이상은 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2013년에 야간노동으로 인한 문제를 학계와 함께 제기하여 야간에 작업하는 노

동자들을 위한 특수건강진단제도를 설계했었습니다. 이 제도는 지금까지도 효율성과 장단점에 대해 논의되고 있긴 하지만, 최소한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 특히 젊은 여성, 운전직과 경비직 등의 중장년 이상의 노동자를 산업보건서비스 제도 우산아래 넣게 되었다는 것만으로 큰 효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연구원은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면, 제도의 개선으로 연결하는 작업을 지치지 않고 끝까지 추진하겠습니다.

그간 산업현장 노동자들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이에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MSDS 제도로 현장 노동자들의 불편과 괴로움이 해소될지 주목하게 되는데요. 새로운 MSDS 제도에 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MSDS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까지는 MSDS 영업비밀, 비치 등이 이슈가 된 것 같습니다. 새롭게 시행되는 MSDS 비공개 심사, 제출 제도에서는 유해성 분류에 대한 제조자 및 수입자의 책임성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달라진 점은 첫째, 작성 주체가 화학물질을 양도·제공자에서 제조 수입자로 바뀌었습니다. 둘째, 작성한 MSDS를 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셋째, MSDS 중 영업비밀로 표시하고 싶은 경우 별도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앞으로는 MSDS 자체가 아닌 MSDS가 제공하는 있는 본질적인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리라 보입니다. 궁극적으로 현장 노동자는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대해 MSDS 교육을 받게 되고,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어떻게 취급할지에 대해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연구원에서는 이러한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현재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알려지지 않아 아쉽거나 소개하고 싶으신 사업이 있으실까요?

우리 연구원은 한국형 뉴딜 사업으로 직업병예측식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업병예측식은,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들에서 발생하는 질병의 동향을 업종별, 직종별, 유해요인 노출별, 시기별로 조사하여 위험집단을 예측해 내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고용노동부가 가진 대규모 데이터들(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고용보험가입자 등)과 보건복지부 산하의 데이터들(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보험수진데이터, 암 등록자료), 기획재정부의 자료(통계청 사망자료)를 연계시키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연계된 데이터들을 연속적으로 추적하여 해석하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이 과제를 통해 현재 문제가 되는 특정 업종의 암 발생, 희귀질환의 발생 동향도 검토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데,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일에 대한 소신이 남다르실 텐데요. 원장님의 일에 대한 철학 및 소신이 궁금합니다.

소신과 철학은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다듬어지는 것 같습니다. 안전보건 분야에 첫발을 디뎠을 때 가슴에 품었던 첫 번째 원칙은 ‘현장을 발로 뛰어서 확인하자’입니다. 자료와 문헌 위주로 작업한 제게 첫 스승께서 크게 질타하면서 주신 교훈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실력과 속도는 기본’이라는 원칙을 갖게 되었습니다. 빠르게 바뀌는 이슈들 속에서 정확한 결과를 적시에 제시하려면 노력뿐 아니라 실력을 키워야 합니다. 젊은 시절, 제 나름대로 정확한 결과를 제시하기 위해 몇 개월씩 노력하여 결과를 냈지만, 이미 그 이슈는 지나가고 다른 방식으로 해결

되어 버렸던 기억이 종종 있습니다. 때를 놓치지 않고 정확한 결과를 제시하는 연구원, 제가 바라는 연구원의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한 가지 원칙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연구자 출신으로 관리자의 위치에 서면, 직원들이 하는 일에 대해 조금해하고, 마음에 차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게 됩니다. 이때 재촉하지 않고 직원이 필요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응원하면서 기다리는 태도’, 이것이 제가 가지려고 노력 중인 세 번째 원칙입니다.

마지막으로 원장님께서 그리고 계신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목표와 비전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우리 연구원의 비전은 ‘산재예방정책을 선도하는 안전보건연구기관으로, 정책을 선도하고 지원하는 것’이 목표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정책을 선도하기 위해서 제도개선연구, 고객과의 소통과 협력, 이를 성과 창출과 연계하는 일을 활발히 수행할 것입니다. 정책을 앞서서 제시하고 실행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실력과 함께 사회적 동향을 민감하게 감지하고 파악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이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